秋-鄭 "1차 다득표자로 단일화" 합의

秋-鄭 "선거 후에도 협력" 당 대표 경선 최대 변수로

정세균 "단일화는 구태정치…1차 투표서 승부내겠다"

■통합 민주당 전대 D-2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대철, 추미애 후보가 3일 '1차 투표후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정세균 후보의 '대세론', 정-추 후보의 '단일화' 후보론이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추-정 연합군은 단일화 효과를 최대화 하는데 조직력을 쏟는 반면, '대세론'으로 상대적 여유를 부려왔던 정세균 후보는 막판 굳히기에 나서 경선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추-정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차 투표 후 결선투표 직전 3위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은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1차 투표에서 정세균 후보가 과반을 획득하면 결선 없이 당선되면서 단일화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일단 1차 투표에서 각자 지지표를 최대한 확보한 뒤 2차 결선 투표에서 표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로 한 것이다.

추 후보 측 대리인인 천정배 의원은 "현실안주세력을 극복해야만 당의 미래가 있다는 구당(救黨)의 정신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양측이)조건 없이 협력할 것이며 선거 후에도 변화와 개혁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정 후보는 4일 단일화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남은 기간 부동층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2차 투표에서 표가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지지표 단속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정세균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과반을 얻는 초반 승부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2차 투표까지 갈 경우, 단일화 효과에 밀려 자신의 지지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이념과 정책 비전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데 이질적인 후보라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며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이라는 정치공학적인 느낌에 대해 국민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세균 후보 측은 남은 기간 대세론을 확산시키면서 자파 대의원들의 전당대 회 참석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

정 후보는 3일 서울을 시작으로 남은 기간 지역별 표밭을 돌며 "될만한 후보를 밀어달라"며 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결선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3위 후보 지지층에 대한 흡수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천정배(오른쪽) 추미애 대표 후보 선대위원장과 이낙연(가운데) 정대철 대표 후보 선대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두 후보가 7·6 전대 1차 투표후 단일화 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례·규정 등 손질, 신뢰 회복하겠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박인환 의원

박인환(58) 신임 전남도의회 의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종전까지는 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교황식 선거방식을 포함해 잘못된 각종 조례와 규정 등을 고쳐나가고, 특히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회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도정 전반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전남도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원하겠지만, 사업추진에 잘못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 집행부를 견제·감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시민단체, 언론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감투싸움에…" 나주시의회 원 구성 못해 파행

신안군의회도 의장단 선출 7일로 연기

나주시의회와 신안군의회가 의원들간 이견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3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간 감투 다툼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나주시의회는 전체 의석 14석 중 8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석을 독식하려 하자 무소속(6석)측이 반발하며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측은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에 제의했지만, 무소속은 부의장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 때도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해 빈축을 샀다.

신안군 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7일로 미뤄졌다.

/나주·신안=정칠현·조완남기자 chjung@

"예산 수억원 1년간 방치"

광주시의회 감사 지적

문예기금 조성 '하위권'

광주시가 수억 원대의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1년 넘게 집행하지 않는가 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도 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인 문화예술기금 조성에는 인색해 '문화수도 광주'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의회는 2007년 광주시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시가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비용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2008년으로 넘겨,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수출원예농민을 위해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키로 하고 예산 1억4천400만원을 확보했다가 1년도 못돼 사업을 포기했다"며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외 시가 본예산에서 2억5천만원, 추경예산에서 5천만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하고도 5천900만원을 쓰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추경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7월 47억원에 불과,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4억4천만원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386그룹 약진

김민석·송영길 후보 선두권 포진

박주선·김진표 후보 등 5위권 안착

통합민주당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3일 최고위원 경선전에서 386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경선전 초반 선두로 나섰던 송영길 후보를 따라잡으면서 386간에 치열한 1위 경쟁이 펼치지고 있다는 게 각 후보 캠프의 대체적인 판세 분석이다.

두 후보는 80년대초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대표적인 386 인사들로 송 후보는 84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 후보는 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및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냈다.

하지만 정치권 입문 당시 동질적 성향을 지녔던 두 사람은 이번 경선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송 후보가 정세균 당 대표 후보와 손학규 대표 등 이른바 열린우리당계와 주류 측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김 후보는 소수파에 속하는 구 민주계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양 캠프는 현재 김 후보가 송 후보를 앞섰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송 후보측은 "김 후보가 확실한 1등으로 올라섰다"고 말했고, 김 후보측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라고 전했다.

김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구 민주계의 조직력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구 민주계의 대의원 지분이 많은 광주·전남 쪽 대의원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들을 포함한 여론조사가 최근에야 실시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판세 변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 민주계의 표심이 상대적으로 김 후보와 박주선 후보 양자에게 집중된 양상이라면, 열린우리당계 표심은 송 후보를 비롯한 6명의 후보에게 분산된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소수파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의 선전에 일조하고 있다.

두 후보간 선두 경쟁 못지 않게 최고위원 진입 티켓을 쥘 수 있는 3~5위 중위권 경쟁도 뜨겁다.

현재로선 정세균 후보와 당내 친노(親盧) 성향 중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진표 후보, 구 민주계의 또 다른 축인 박주선 후보가 5위권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또 김근태계와 정동영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학진 후보, 친노 진영의 대표 주자격인 안희정 후보, 구 민주당의 통합파로 분류되는 정균환 후보도 최고위원 입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서구의회 의장 오향섭씨
북구의회 의장 최운초씨
영광군의회 의장 신언창씨

〈오향섭 의장〉

〈최운초 의장〉

〈신언창 의장〉

광주시 서구의회는 3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에 오향섭(65) 의원을 선출했다. 오 의원은 전체 의원 13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7표를 얻어 의장으로 뽑혔다. 부의장에는 김희주(46) 의원이 선출됐다.

북구의회도 3일 정례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최운초 의원(63)을 선출했다. 최 의원은 참석의원 19명 중 12명의 지지를 얻어 6표에 그친 김순례(67)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고재을(62) 의원이 뽑혔다.

영광군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신언창(53)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영광=조익상기자 ischo@